

이덕일의 '역사의 창'



검찰과 과유불급(過猶不及)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뜻으로 '논어' 선진(先進)편에 나온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자장(子張)과 자하(子夏) 중에 누가 낫다고 물었다. 공자가 자장은 지나치고(過), 자하(子夏)는 미치지 못한다(不及)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자장이 자하보다 낫다는 말이라고 묻자 공자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현상을 과유불급이란 잣대로 바라보면 실체가 보인다.

한 법학자가 법무장관에 기용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의 언행 불일치가 드러났다. 그렇다고 그가 법무장관이 되면 나라가 절뚝나는 것처럼 검찰과 언론이 사냥에 나설 정도의 하자였는가 물으면 누구도 선뜻 답변하기는 힘들 것이다. 검찰의 행태는 과유불급 정도가 아니라 '과유자승'(過猶自勝)이었다. 지나친 것이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었다는 뜻이다.

그간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이 문

제 제기한 적은 많았다. 그러나 이번처럼 검찰과 언론이 한 팀으로 대응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조국장관 일가 문제가 심각했다고 할지라도 많아야 형사부 검사 세 명 정도면 충분했을 사안들이다. 표창장 위조 여부, 응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에 각각 한 명 씩의 검사를 배당해 사건의 실체를 찾았다면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도 않았고, 검찰 스스로도 '정치검찰'이란 올가미에 목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정작 검찰 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던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 집안에서는 날아가는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초정밀 현미경을 들이댔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성어가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오얏을 따려 한다는 혐의조차 받지 말라는 뜻이다. 청문회 당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야당 의원들이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것인가?"고 거듭 묻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날 밤 표창장 원본도 없

이,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검찰과 언론이 한 팀으로 대응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조국장관 일가 문제가 심각했다고 할지라도 많아야 형사부 검사 세 명 정도면 충분했을 사안들이다. 표창장 위조 여부, 응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에 각각 한 명 씩의 검사를 배당해 사건의 실체를 찾았다면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도 않았고, 검찰 스스로도 '정치검찰'이란 올가미에 목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정작 검찰 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던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 집안에서는 날아가는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초정밀 현미경을 들이댔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숨긴 민낯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일부 언론이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댄 것이다. 언론은 왜 심판 명찰을 달고 선수로 댔는가? 조국 장관 사퇴는 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과한 행태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고백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아직 죽지 않았다.

당연히 형평성은 사라졌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한 여교생의 표창장 위조 여부

보다 그 표창장 발급 대학 총장의 가짜 박사 문제가 더 구조적이고 더 큰 문제다.

'교육자적 양심' 운운하던 동양대 총장은 박사는커녕 학사 학위도 없었다. 그가 25년간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사문서 위조와 이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가 자행되었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여중생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려던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관 한 명 배정했다는 소식은 아직껏 들리지 않는다. 현대 한국을 지배하는 중세 검찰,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이 사건은 언론의 숨긴 민낯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일부 언론이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댄 것이다. 언론은 왜 심판 명찰을 달고 선수로 댔는가? 조국 장관 사퇴는 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과한 행태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고백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의료칼럼

거미 스마일(gummy smile)



이원표
조선대학교병원 치주과 교수

우리들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위이자,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것 중 하나로 웃음이 있을 것이다. 함박웃음을 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도 행복해지며, 비록 인상이 험악한 사람일지라도 웃을 때는 인상이 상당히 부드러워 보인다. 또한 가벼운 미소는 첫 인상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스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웃음을 마음껏 짓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의도적으로 웃음을 참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연연이 이효리처럼 잇몸이 활짝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웃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윗잇몸이 1~2mm 정도까지만 살짝 비취 보일 때라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잇몸이 노출될 경우, 이러한 미소를 거미 스마일(gummy smile)이라 부르며, 대부분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미 스마일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일반적일 때보다 위 치아가 짧은 탓에 웃을 때 잇몸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이다. 한국 사람의 경우 윗 앞니 길이가 보통 9~10mm 정도이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치아가 짧거나 잇몸 병으로 잇몸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치아를 덮을 경우 거미 스마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치료 방법은 간단하

다. 즉 과도하게 자라난 잇몸을 레이저 등으로 통증 없이 잘라내 정상 치아 길이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웃을 때 잇몸이 덜 비취 보이기 때문에 거미 스마일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상 치아 길이 입에도 불구하고 웃을 때 과도하게 잇몸이 노출되는 경우이다. 보통 윗잇몸을 당기는 근육 힘이 매우 세거나, 윗턱이 과잉 성장한 사람에게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원인으로 거미 스마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법이 복잡하였다.

윗잇몸을 과도하게 당기는 근육 힘을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톡스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였으나, 이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약 효과가 떨어져 재발이 되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윗턱의 과잉 성장처럼 골격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라는 위험성과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양악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하지만 5~6년 전 입술 재위치술(Lip repositioning surgery)이 소개되면서

거미 스마일 환자들도 자신감 있게 마음껏 웃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입술 재위치술은 웃을 때 과도하게 노출되는 잇몸 양만큼 구강 점막절제 후, 윗잇몸을 이전보다 치아 근근로 재위치시켜 꺾어 주는 아주 간단한 구강 성형 수술이다. 전신 마취 없이 부분 마취로 진행되며, 비용 또한 몇 십 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양악 수술보다 저렴한 치료법이다. 또한 시술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아, 수술 후 부작용과 통증 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톡스와 달리 재발이 적어 반영구적이다.

예쁜 미소를 보면 누구나 맘이 편해지고 즐거워진다. 자신의 미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예쁘기는커녕 보기 흉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일반인들의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경우도 많다. 평생 고민을 안고 살기 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자신의 구강이나 입술 형태가 수술을 통해 밝은 미소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대 의료 수준은 거미 스마일 정도는 간단한 구강 성형 수술 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고

창업 피자들의 축제, 순천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이재근
순천시 일자리경제국장

오랜 기간 동안 전라남도 진도(珍島)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진돗개가 떠올랐다. 요즘은 '송가인'이라고 한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은 올해 초 미스트롯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 달에 겨우 2~3개의 행사 설외만 들어오던 무명 가수에서 이제는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스타가 되었다. 더불어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은 전통 가요인 트롯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업 분야도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순천시가 주최하는 '순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목표는 이슈가 되는 혁신적 프로그램과 스타 탄생이 목표다. 우리 시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창업 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도시, 누구나 창업

분야의 송가인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시작이다. 순천시는 창업 경진대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로는 드물게 1등 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분야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전자 상거래, 한류 음식이다.

대회는 11월 중 사흘에 걸쳐 열리며 12월 초 최종 심사를 통해 3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경진대회는 성향 분석과 전문가 강연을 통한 팀 빌딩(Team Building), 분야별 강연 및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그리고 지역 탐방을 통한 연계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팀별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세계 팀에게 1등 1억, 2등 1000만 원, 3등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세계 팀 이외에도 패자 부활전을 통해 선발된 두 개 팀을 포함 총 다섯 개 팀에게는 상금을 제외한 팀당 1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과 거주 공간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팅 전문 교육과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순천시의 전폭적인 창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창업 도시 브랜드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 창업자 다섯 팀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순천시 창업 보육 정책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의미 있는 선연이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창업 경진대회에 우승 상금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것 또한 창업 도시를 향한 순천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실리론 벨리라고 불리는 북경 중관촌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형 창업 생태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지원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창업보육센터의 전신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옛 근로복지문화센터에 창업 공간을 열어 창업자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할 것이다.

창업 아파트 조성을 위한 구상도 진행 중이다. 이후 2022년까지 창업 인력을 확보하고 탄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사동에 조성 예정인 도시첨단 산업 단지에 입주하여 순천시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순천시의 창업보육센터에는 '순천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순천형 창업

생태계는 세계의 축으로 움직인다. 창업 보육센터, 창업 카페 그리고 중관촌 마네초지 모델이 그것이다.

먼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정보 집약, 행·재정적 지원, 사무 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창업 카페는 중관촌의 3 W 카페(Where We Work)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 곳은 예비 창업자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개방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중관촌 마네초지 모델은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의 휴양 공간이다. 순천만 정원과 같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순천 창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3 W 카페에서 어울리고 개인의 아이디어가 창업보육센터의 시스템과 마네초지의 투자자를 통해 사업화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도시, 순천시가 그리는 창업 생태계이다.

창업자가 단절된 개인이 아니라 창업 생태계에 연결된 일원의 자격으로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고 순천시의 지향이다. 그 목표와 지향에 창업을 통한 도시의 발전을 바라는 혁신적인 순천시민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한다.

社說

혁신도시 문화 관련 기관 '지역 사업' 강화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지역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 산학협력 등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난 2014년 이후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 30%를 지킨 해는 2017년 단 한 차례(30.8%)에 그쳤다. 2015년 20%, 2016년 19.4%에서 2018년에는 13%로 되레 뒷걸음질했다. 올해는 국토부에 지역 인재를 22%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하고도 채용이 마무리된 현재 16.7%에 머물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난해와 올해 미취업 청년 여섯 명에게 5~6개월간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체험형 인턴'을 운

영한 것이 전부였다. 지역 기업 및 대학과 협력 사업 역시 4년간 실적이 없다가 지난해 이후 업무 협약 세 건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보여 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30%를 달성한 해가 한 번도 없었다. 2015년 20%, 2016년 7.1%, 2017년 12.5%, 2018년에는 23.5%에 그쳤다. 또한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등의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공모에서 선정됐거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혁신도시 이전 문화 관련 공공기관들의 지역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라는 도시 조성 취지를 의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하다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어제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외국인 범죄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4884명이었다. 연간 400~700명대 수준인데 마약과 절도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로 초등학생을 치고 자기 나라로 달아났던 20대 불법 체류자가 27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도 치안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치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등 강력 사건이 많아 출동한 경찰마저도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

들의 범죄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5만6300여 명(2019년 6월 기준)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광주·전남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 해서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백안시(白眼視)하거나 혐오하는 사회적 편견이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원활하게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체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국가·민족별 특성을 잘 파악해 그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한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범죄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無等鼓

"너 같은 놈이 공공의 적이야." 형사 강철중은 2002년 1월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패륜아 등에게 이 같이 일갈하며 헤성처벌 등장했다. 한국 영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개성이 강했던 강 형사는 그러나 그 자신 역시 '공공의 적'이었다. 노점상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조폭의 마약을 가로채 되팔기도 했다. 때문에 직장(경찰서)에서도 가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영화는 '공공의 적'을 악질 범죄자라만 규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공공의 적

벌사봉공이나 선공후사 등 사자성은 있었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공공(公衆)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시점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공공이라는 표현은 주로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후면·대중교통 요금과 함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도였다. 공공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즉 공공질서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유럽에서는 그에 반해 공공이라는 개념과 그 중요성이 꽤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

가치와 공익을 해치며 사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적'이 주변에 널리 있다면 우리나라가선진국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시점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공공이라는 표현은 주로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후면·대중교통 요금과 함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도였다. 공공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즉 공공질서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유럽에서는 그에 반해 공공이라는 개념과 그 중요성이 꽤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3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국록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